

이동국 월드컵 못뵈다

무릎 수술 결정

아드보카트호 간판 스트라이커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의 독일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다.

소속 팀 포항은 13일 이동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무릎 십자인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으로 판명돼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맨유 박지성



17일 맞대결

박지성, 내일 선덜랜드전 연속골 도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파워 엔진' 박지성(25)이 15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선덜랜드와 홈 경기에서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이어 17일 밤 8시45분에는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경기장에서 태국전사 선배 이영표(28·토트넘)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 2월5일 폴렌전에서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안타깝게도 자책골로 관중대 1골을 도둑맞은 셈이 돼버린 박지성은 지난 10일 아스날과 라이벌전에서 뼈가골을 뽑아낸 상습에 불을 지피 시즌 30번째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1주전에 아스날전 출격을 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고 웨인 루니, 게리 네빌 등 동료들도 박지성에 대해 '칭찬 릴레이'를 펼쳐 분위기를 어느 때보다도 좋다. 아스날전까지 과속의 9연승을 달린 맨

유의 다음 상대는 리그 꼴찌(20위) 선덜랜드다. 32경기에서 2승밖에 올리지 못한 팀이라 맨유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진다.

맨유는 현재 승점 75(23승6무4패)로 선두 첼시(승점 82)를 승점 7 차이로 추격하고 있어 막판 대역전을 노린다.

박지성은 사흘 뒤 런던에서 이영표를 만난다.

지난해 10월 맞대결에서 1-1로 비긴 이후 6개월 만이다. 맨유와 토트넘의 1차전에서 박지성과 이영표는 모두 풀타임 출전했다.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하향선인 4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첫 맞대결을 앞두고 박지성은 "영표 형과 만남이 기대되지만 경기는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이영표는 "지성은 잘 뛰고 승점은 우리 팀이 올리는 게 좋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지난 8일 잉글랜드 챔피언스(2부 리그) 코벤티리시에서 무려 10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스나이퍼' 설기현(27.울버햄프턴)은 왓포드와 시즌 43차전 홈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토트넘 이영표



차두리 팀 결승행 따라 UEFA컵 무대 설 수도

차두리(26·프랑크푸르트)가 아버지 차범근 수인 삼성 감독에 이어 유럽축구연맹(UEFA)컵 무대에 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05~2006 독일 FA컵(DFB 포칼) 결승에 진출한 소속 팀 프랑크푸르트의 맞대결 상대가 정규리그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뮌헨은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3부 리그 상파울리를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지난 15분 오언 하그리브스의 선제 결승골에 이어 후반 39분과 43분 클라우디오 피사토가 내리 두 골을 몰아넣어 '자이언트 킬러' 상파울리의 돌풍을 잠재웠다.

뮌헨의 결승 진출로 프랑크푸르트는 결승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시즌 UEFA컵 출전 티켓을 쥔 확률이 높아졌다.

UEFA컵 출전 티켓은 DFB 포칼 우승팀에만 주어진다. 그런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뮌헨이 리그 3위 안에만 틀면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게 돼 DFB 포칼에서 정상에 오르더라도 UEFA컵 출전 티켓은 준우승팀에 돌아가게 된다.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0승6무3패(승점 66)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4위 살게 04에 13점차로 앞서 있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확실적인 상황이다.

앙리 22골 득점선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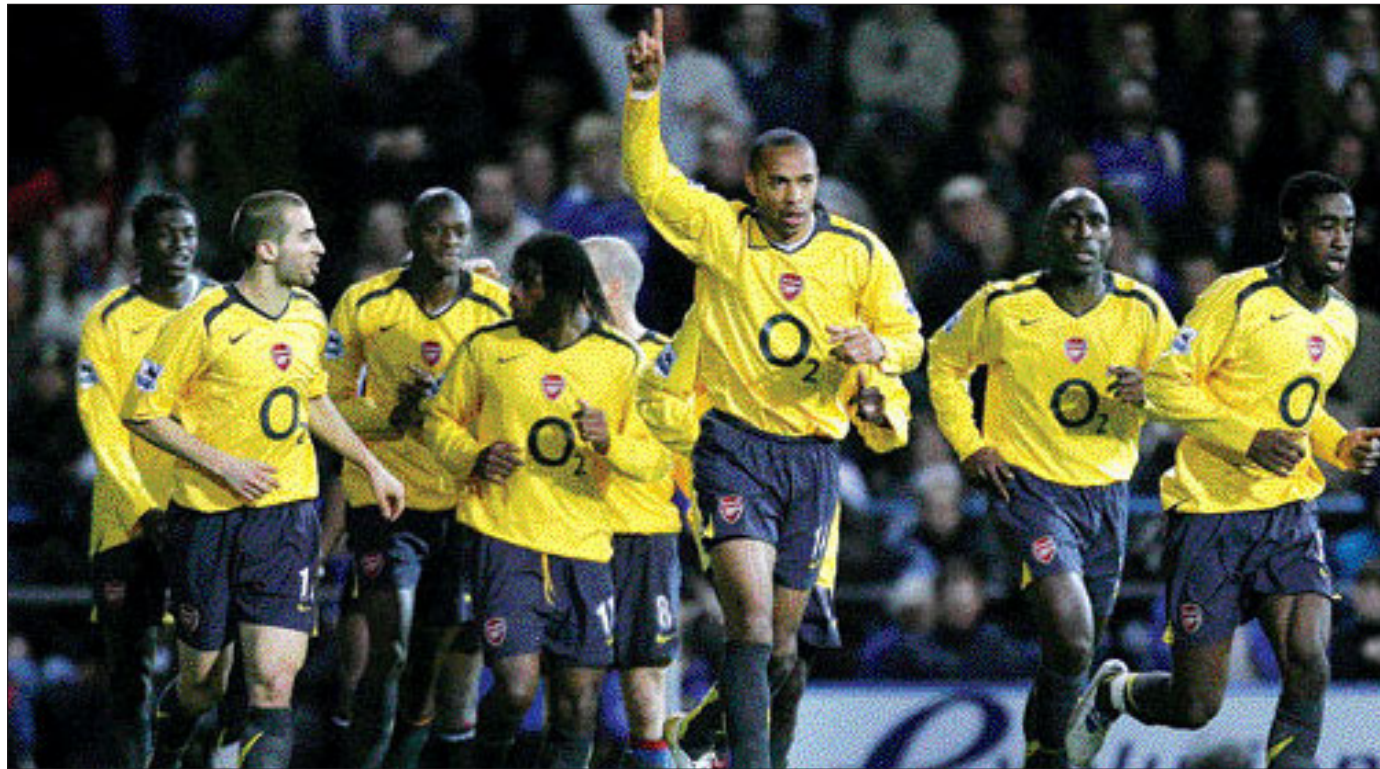
한국의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인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간판 골잡이 티에리 앙리(29·아스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다.

앙리는 13일 오전 원정경기로 열린 포츠머스와의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차전에서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앙리는 시즌 22호 골로 투드 반 니스텔루이(맨체스터 유나이티드·21골)를 제치고 득점 단독 1위가 됐다. 하지만 소속 팀 아스날은 후반 21분 로마나 투아투아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1-1로 비겼다.

아스날이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인 약체 포츠머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둬, 이영표(29)가 활약 중인 토트넘은 리그 4위까지 나서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희망을 부풀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스날 선수들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원정경기로 열린 포츠머스의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차전에서 전반 36분 앙리(가운데)의 선제골 후 기뻐하고 있다.

히딩크 러 대표팀 맡아 첫 외국인 사령탑

히딩크는 러시아 대표팀을 이끄는 첫 외국인 사령탑이 됐다. 러시아는 옛 소련 해체 이후 1992년 국제축구연맹(FIFA)에 재가입했다.

러시아는 독일월드컵 유럽 예선 3조에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 이어 3위에 그쳐 탈락했다. 2004년 10월 포르투갈에 1-7로 참패한 적도 있다. 러시아 대표팀은 유리 시오민 감독이 사임한뒤 알렉산데르 보르디우크 감독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옛 소련 시절을 포함해 월드컵 본선에 9차례나 나섰고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다. 레프 야신이라는 전설적인 골키퍼를 배출했고 1960년엔 유럽 챔피언이 된 적도 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올레그 실렌코는 카메룬전에서 5골을 뽑아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항영조와 함께하는 **제2회 보성녹차 마라톤 대회**

- 온주리러 영웅 항영조 선수가 배려분리 함께합니다.
- 밝아온 코스와 풍요한 여리분과 기록을 단축하는 기쁨가 될 것입니다.
- 알뜰히 여리분들 축하와 복 넘은 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재미 고장으로 재밌고 보성다향채와 함께 합니다.

일 : 2006. 5.7(일) 오전 9시
장 소 : 보성군 공설운동장
참가종목 : 풀코스, 하프, 10Km, 5Km, 해니매들코스, 하이프, 10Km)
참수기간 : 2006. 4. 14(금)까지
홈페이지 : http://www.boseongmarathon.net
문의 : ☎ (061) 650-5291~2
보성군청 : http://www.boseong.go.kr
광주일보 : http://www.kwangju.co.kr
한국마라톤협회 : http://www.kma080.com

주최 | 보성군 · 광주일보사 주관 | 전국마라톤협회